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3일 화요일 음 9월 18일 (10월)

기상정보

흐림



기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흐려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13°C, 낮 최고 기온은 15-17°C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week, including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trend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the week.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few days.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including food safety and emergency services.

월드뉴스

“총 들고 투표”... 미 대선 앞두고 긴장감

내전 수준 소요사태 우려

올해 미국 대선 이후 소요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총을 소지한 채 투표하겠다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총기옹호단체 ‘오픈 캐리 펜실베이니아’를 이끄는 저스틴 딜런 인터뷰를 보도했다.



없는지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은 투표소가 약탈당하는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도 받았다. 미국에선 대선 후 결과를 두고 ‘내전’ 수준의 소요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라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한라칼럼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독자위원

공정이 화두인 세상이다. ‘수저 계급론’이 우리 사회의 태생적 불공정을 건드린 불씨였다면, 작년 여름의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불리웠다.

우리 사회의 공정

갑에 기인하지만,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세대의 속내는 요행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었다.

아니면 지역 출신 인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부분 정책에서 지역인재는 그 지역 대학을 나온 청년을 의미하는데, 왜 대학이 기준이 돼야 하는지 근거가 없다.

인재 의무 채용 비율에 미달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아야 한다. 삶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삶은 원래 불공정한 것이니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

열린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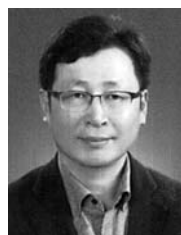
제주에 인공지능 르네상스를 꿈꾸다



김경훈 JDC 사회과학기술실장

이탈리아 피렌체는 ‘꽃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 전체가 회화·조각·건축 등 르네상스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다. 문예 부흥 운동인 르네상스는 왜 피렌체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을까?

주민이 해결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강창웅 서귀포시 대천동장

수돗물 유출 발생과 관련해 서귀포시 대천동 지역의 모든 가구는 피해대상이었다. 동 주민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5000여 가구에 5만5000명(2ℓ)을 공급했다.

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큰 불만 없이 삼다수를 공급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있다.

Advertisement for Hanra Telecommunications, focusing on network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offering IT solution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Donggu Dental Clinic, providing dental services and emergency care.

Advertisement for Jeju Vocational Training College, offering various courses and training programs.